

# 회원사 소식

# 동남육가공

## 냉장돈육 등 수출 박차

동남육가공(대표 李錫斗)은 정부의 축산물 수출정책에 발맞추어 국내 처음으로 냉장돈육 6톤을 일본지역에 수출한데 이어 냉동돈육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 이의 수출에 밝은 전망을 안겨 주고 있다.

동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냉동돈육 2만8천kg을 일본지역에 수출, 큰 호응을 받는데 이어 금년들어 7월말 현재 약 17만7천kg을 수출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목표인 37만kg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동남육가공은 수출 전담 창구인 무역팀을 총무부에 신설,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돈육 수출에 따른 일본지역 업자들의 신용도가 높아감에 따라 생우(生牛) 95두도 수출, 앞으로 수출량은 계

속 늘어날 전망이다.

## 미주지역 시장 점검

동남육가공은 수출 기반의 확충을 위해 미주지역 등 육가공 시장을 점검했다.

朴贊南 회장과 李錫斗사장은 지난 6월1일부터 보름동안 미주지역의 FARMER JOHN MEATS社 등 3~4개 육가공 업체를 방문, 기술 자문을 받은데 이어 기타 관계사들을 방문, 수출입 상담 등을 벌였다고.

# 롯데햄 · 우유

## 액션88 성공결의대회

롯데햄 · 우유(대표 姜晋佑)는 청주공장에서 1백여 사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액션88 성공결의 다짐대회」를 7월16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姜사장은 상반



△미주지역 시장을 점검하는 동남의사 회장과 李사장



기 경영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5% 선으로 팔목할 만큼의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같은 다소의 성과는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굳건한 자세와 정신무장으로 액션88 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또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동 운동이 전 직원들의 결속하에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 등 3개항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 ACTION산악회 창립

ACTION산악회가 창립되어 지난 5월17일 북한산에서 제1회 산행을 가졌다.

ACTION산악회는 지난 5월9일 본사 직원 36명으로 발족, 초대 회장에 김세창부장(육영업부)을 선출하고 이날 첫 산행을 실시.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산행에서 회원들은 단합된 팀워크와 적극적인 협동정신으로 우

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모범 회사로의 발전을 위해 ACTION 88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

## 제일제당

### 전국적으로 판촉행사

제일제당(대표 孫永禧) 육가공사업부는 5월10일 본부장 南昌鉉상무, 사업부장 李光佑이사를 비롯 4백50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제품 스펀, 게토티의 출시를 기념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가두 판촉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 육가공 신념화 훈련

육가공사업부 특관부 여직원 1백여명은 7월8일 용산사무소 교육실에서 신념화 훈련을 가졌다. 이날 훈련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정신을 기르고 판촉활동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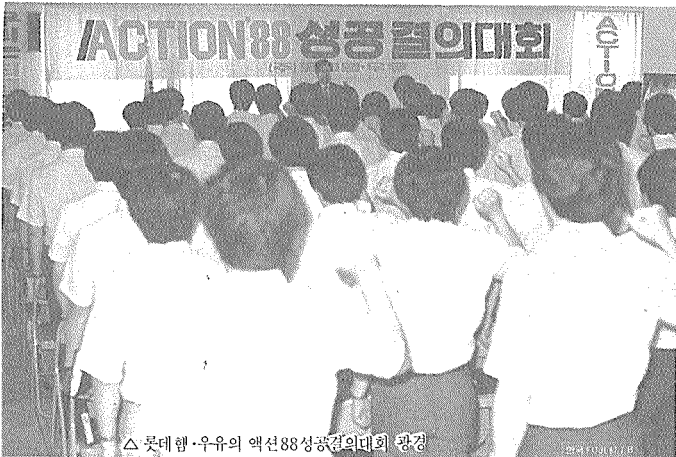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참가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 판촉여사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자질을 길렀다고.

## 진주햄

### 체육대회 겸 야유회

진주햄(대표 朴載福)은 경기도 일산소재 YMCA캠프장에서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6월3일 가졌다.

거래처와의 친목도모와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서울, 경기지역의 20여 대리점주 등 3백여명이 참가, 축구, 배구, 육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종합 우승에는 남부영업소, 준우승은 본부팀(서울사무소), 3위는 서부영업소가 각각 차지했다고.



△ 롯데햄·우유의 액션88 성공 결의대회 광경



△ 산행에 나선 액션산악회

## JIM 운동...한 마음

진주햄은 전사 혁신 운동인 JIM 운동을 시작했다. JIM 운동은 혁신적 사풍조성을 통해 회사의 구성원 전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자신과 회사가 하나가 되며, 스스로와 회사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업계 정상이 되며, 나아가 명실상부한 일류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운동이다. 우선 회사는 JIM-(JINJU Innovation Movement) 운동의 시발점으로서의 JIM선언 전진대회를 87년 3월 21일 개최하였다. 대회는 기획실장의 JIM 추진 배경설명과 경과 보고에 이어 부문별 JIM 추진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사장의 JIM 추진 선언 그리고, JIM 운동의 실천을 다짐하는 사원 대표의 결의문 채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JIM 선언 전진 대회에 있어서 “직장인의 정신자세와 관념전환”에 관한 유철중씨의 특강이 있었다.



△ 진주햄의 JIM 선언 전진대회

## 원료육 공급 크게 기여

진주햄은 2천두 규모로 양돈업과 축산업을 하고 있는 장군농장(경북 군위군 효령면)을 인수했다.

진주햄은 이 농장의 인수로 육가공품 원료의 20~30%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원료육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냉장

### 창립 19주년 기념식

한국냉장(대표 申正洙)은 7월1일 창립 19주년을 맞아 본사와 각지사별로 기념식을 갖고 장기 근속자와 모범 사원들을 표창했다.

## 육가공품 비교평가회

생산관리부는 타사 제품의 품질 비교시험을 통한 육가공품 평가회를 4월30일 부터 5일간 갖고 판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자사 직원과 한국조리 직업훈련생 33명을 엄선, 실시된 평가회는 햄·소시지 제품을 타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찾고, 소비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 코델리

### 利川에 생산공장 착공

코델리(대표 金敬又)는 미국 굴지의 햄버거 메이커인 맥도날드社의 기술지원을 받아 햄버거 패티를 생산기로 하고 경기도 이천에 2천여 평의 공장부지를 마련, 착공에 들어갔다.

코델리는 현재 경기도 성남 소재 공장에서 햄, 소시지, 바베큐, 베이컨, 햄버거 등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맥도날드와의 기술 제휴로 이들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촉진을 증대하며, 금번 햄버거패티 양산 체제에 따라 수출길도 모색, 7월 부터 공장을 착공하게 된 것.

이천공장은 오는 12월 완공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약 11억원 정도라고 한다. 또한 코델리는 88올림픽에 대비, 외국인들의 기

호와 포장, 디자인 색상 등을 국제 감각에 맞추기로 하고 시제품의 시식회를 통한 맛의 고급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 육가공품 3개 공장, 제품에 KS 표시허가

가공식품에 대한 표준화 사업이 농림수산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소시지, 프레스햄 등을 제조하는 회원사의 공장과 제품에 KS표시가 허가되었다.

농림수산부의 국가 표준규격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과 품목은 롯데햄·우유 청주공장과 「푸랑크후르트소시지」, 제일제당 이천공장

과 「비엔나소시지」, 「푸랑크후르트소시지」 「프레스햄」과 진주햄양산공장과 「비엔나소시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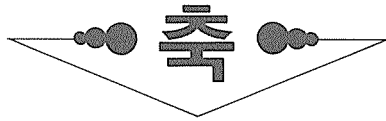
다만 소시지와 프레스햄의 표시품에 한해서는 10℃ 이하의 저온 유통시설이 구비된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한편 제조일자가 각인으로 찍혀지기 때문에 지울 수 없도록 핫 프린팅 방법으로 표시토록 부대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이들 식품에 대한 KS표시 허가는 가공식품이 날로 다변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으며, 소비 또한 늘어남에 따라 품질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서 지난해 4월 공업표준화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림수산부가 관장케 됨으로서 3월2일 허가된 것.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 실시를 위한 운영요강을 제정하고 학계, 업계 및 식품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격 심의회를 설치, 우리 나라 가공식품 규격을 일

본, 미국 및 국제 규격 (WHO / FAO규격, JAS규격) 등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품질규격에 의해 생산이 가능한 소시지 등 7개 식품의 품목을 지난해 10월 KS표시 지정품목으로 고시했었다.



## 육가공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생산품목 < 프라스틱 주방용품 > 전문메이커  
각종 판촉물

 **이우합성공업사**

대표 박 궁 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605-2

전화 : (서울) 764-6100

DDD (032) 62-3611

654-0577